

## 오픈도어 월드와치리스트의 선교전략적 의미

김경복선교사(오픈도어 사무총장)

### 1. 들어가는 말

오픈도어의 창시자 브라더 앤드류는 복음의 밀수꾼으로 한국교회에 알려졌다. 그가 1955년 처음으로 동구권 공산국가인 폴란드를 방문했을 때 공산권을 향한 사역의 부르심을 확신했다. 교회는 폐쇄되었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들이 완전히 사라진 줄 알았지만, 그곳엔 여전히 목숨을 걸고 신앙을 이어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가 방문한 한 침례교회 목사와의 만남이 현재의 오픈도어 사역을 있게 했다. 침례교 목사는 그에게 강단에서 말씀을 전해줄 것을 부탁했고, 예배 후 그와의 교제를 통하여 그 무엇보다도 그들이 필요한 것은 그들과 함께 있어 주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했다. "이렇게 방문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무 말도 없이 이렇게 당신을 보는 것 만으로도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때때로 우리 이 싸움에 혼자 남았다고 생각하거든요."<sup>1</sup> 그 후 브라더 앤드류는 폭스바겐 차에 성경을 가득 싣고, 잊혀져 혼자 남았다고 생각하는 지체들을 찾아가기 시작했다.

브라더 앤드류의 공산권에 성경을 전달하는 사역은 서구 교회에 큰 충격을 주었고, 1967년 하나님의 밀수꾼(God's Smuggler)이란 책으로 출판되었다. 한국에는 1971년 복음은 철의 장막을 뚫고(생명의말씀사, 1971)라는 이름으로 처음 소개되었고, 하나님의 밀수꾼(조이선교회, 2008)으로 재발행되었다.

젊은 시절 브라더 앤드류를 책으로 접했고, 공산권 선교를 준비하며 자연스럽게 오픈도어 사역에 참여했다. 국경을 넘어 성경과 기독교 서적을 전달하기도 했고, 중국의 1세대 가정교회 지도자들을 만나 중국가정교회의 부흥의 비결을 묻기도 했다. 어느덧 중국사역 현장을 떠나 오픈도어로 복귀하면서 오픈도어 선교전략이 한국교회 선교전략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깊게 고민해 보았다. 지금은 한국교회의 전통적 선교방식-선교사 파송 중심의-과 결이 많이 다르지만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한국교회 선교에 하나의 길을 제시해 줄 수 있으리라는 생각에 미치게 되었다.

그 중심에 월드와치리스트<sup>2</sup>-세계 감시 목록 혹은 세계 기독교 박해지수-가 있다.

---

<sup>1</sup> Brother Andrew, God's Smuggler, Hodder and Stoughton Ltd, London, 1970, p.88

<sup>2</sup> World Watch List, 이하 WWL로 표기. 직역하면 '세계감시목록'으로 할 수 있는데, 한국교회에 소개하면서 의미를 좀더 구체적으로 전달하기 위하여 '세계 기독교 박해지수'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이 글에서는 월드와치리스트와 세계 기독교 박해지수라는 표현을 혼용하여 사용하였지만 같은 의미이다.

## 2. 월드와치리스트란 무엇인가?

### 1) WWL 연구과정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인 1993년, 오픈도어의 주요 사역 대상이었던 공산권이 개방되면서 새로운 사역지역을 모색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박해 받는 교회의 실상을 파악할 필요와 사역 대상지로 선정할 기준을 파악하기 위하여 연구팀이 설립되었고, 현장을 이해할 간단한 설문조사 형태의 연구가 시작되었다. 이후 현장을 보다 구체적이며, 분석 가능한 연구방법을 고민하게 되었고, 2차에 걸쳐 큰 틀의 연구 방법론이 개발되었다. 현재 2013년 개발된 연구 방법론을 10년간 지속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압박과 폭력이라는 큰 틀로 구분한다. 각각의 틀은 사회 현상적으로 쉽게 구분할 수 있는 폭력과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 서서히 목을 죄어오듯 전방위적으로 찾아오는 압박으로 나눈다. 폭력은 정기적으로 언론과 방송에 주의를 기울이면 쉽게 통계를 잡을 수 있고, 누구나 선교지의 언론을 일정기간 모니터 하면 유사한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다. 반면, 압박은 사회의 다양한 요소에 의해 서서히 진행되어 형성되어온 사회 특색과 관계된 문화적 측면이 있으므로 쉽게 분별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월드와치리서치팀<sup>3</sup>-세계 감시 연구팀-은 개인, 가정, 사회, 교회, 국가적 영역으로 구분하여 세밀하게 설계된 설문을 통하여 수치로 환산 표시한다. 각 영역의 최고 점수는 16.9점이며, 총 6가지 영역을 합산하여 100점이 된다. 이렇게 세밀하게 지수를 환산하는 이유는 국가별로 다양한 환경에서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박해의 정도를 서로 단순 비교가 가능하도록 이해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월드와치리스트는 박해 정도를 총점이 41-60을 높음, 61-80을 매우 높음, 81-100을 극심함으로 분류하여 국가 간의 박해 정도를 비교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방법은 월드와치리스트 방법론<sup>4</sup>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

<sup>3</sup> 월드와치리서치(World Watch Research, WWR)는 국제오픈도어의 연구 부서이다. 이 부서는 학술적으로 정밀한 조사를 수행하고 학술적 기준에 따라 연구를 문서화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WWR은 1992년부터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한 박해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수집하고 출판해 왔다. 2019년 6월 현재 WWL 연구팀은 전체 연구 책임자 1명, 박해 분석가 7명, 연락 및 대외 소통 담당 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모두 관련 학부 학위를 취득했으며 이 중 전체 연구 책임자 1명을 포함한 3명의 분석가들은 관련 박사 학위를 취득했거나 학업 중에 있다. 그 외 5명은 인권, 헌법 또는 거버넌스 분야에서 경험이 있는 변호사이다. 2014년부터 WWL 연구 프로세스에 국제종교자유연구소(IIRF)에 의한 감사를 추가했다. 샘플 국가를 선택하여 WWL 방법론이 정확하게 적용되고 그에 따라 국가의 박해지수가 매겨지는지 점검 받는 것을 통해 여러 다른 나라들 간의 박해 지수 비교가 가능한지를 반복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sup>4</sup> Complete World Watch List Methodology, Open Doors International, 2021 지수 산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박해의 정의, 박해동인, 설문내용, 박해의 6가지 영역, 박해지수 산출 실례 등에 대해

## 2) WWL의 국가별 정보

2023년 1월 18일에 발표되는 세계 기독교 박해지수는 2021년 10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조사 수집된 자료를 월드와치 방법론에 의해 분석하고, 수치로 환산하여 전세계 기독교 박해 국가 상위 50개국을 발표하게 된다. 분석되는 자료는 오픈도어가 감시하는 세계 70여 개국에서 일하는 오픈도어 사역자들과 외부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수집된다. 이 자료는 박해지수를 산출하는데 사용될 뿐만 아니라 각 국가의 다양한 영역을 이해하기 쉽도록 국가별 정보로 기록된다. 이 국가별 정보가 한국교회의 선교전략을 구상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다.

각 국가별 자료는 매년 상위 50여 개국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정리하는데, 그 활용에 따라 풀버전과 요약버전으로 나뉜다. 지금까지 우리는 1년 12달 회지를 통해서 국가별 분류 자료를 2-3년동안 소개되지 않은 국가 중심으로 가능한 중복을 피해 소개하여 왔다. 그러나 이 정보가 40-100페이지에 달하는 풀버전을 6쪽의 분량으로 축약하다 보니 현장을 개관할 뿐 충분한 자료가 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제 이 시점에서 이것을 한국교회와 함께 어떻게 유용한 자료로 공유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우리의 역할을 고민하고 있다.

## 3) WWL 자료 활용방안

우선 우리는 올 한 해 동안 지난 30년간 축적된 오픈도어 WWL 국가별 자료를 최소한 개괄적인 정보로 정리하여 매주 한 나라씩 상위 50개국 전체를 소개할 계획이다. 홈페이지 자료실과 오픈도어 위클리<sup>5</sup> 모바일 매거진을 활용하여 소개하게 될 것이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이듯 오픈도어의 1,300여 필드의 사역자들이 유용한 정보를 쏟아 놓아도, 우리가 가공하지 않고, 활용할 방법을 찾지 못하면 영원히 깊은 통찰력을 가지고 선교 현장을 접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왜 지금 이 시점에서 이러한 고민을 하게 되는가? 그것은 한국교회의 선교 현장이 오픈도어가 예의주시하며, 감시하고 있는 상위 50개국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 다른 이유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한국선교의 새로운 이정표를 전통적 방식의 선교에서 현지 교회와 더불어 선교하는 전략적 방식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는 조심스러운 제안이지만 그 동안 사역 현장에 대한 깊은 통찰과 전문 연구기관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선교 현장에 천착한 한국 선교의 연약함을 돌파하는데, WWL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 3. 오픈도어의 선교전략

---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sup>5</sup> Open Doors Weekly는 2023년 2월부터 주간 단위로 핸드폰을 통해 확인 가능한 디지털 품으로 발행된다. 오픈도어 홈페이지 기반으로 카톡에서 활용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으며, WWL 요약정보 6페이지, 박해소식, 박해스토리, 선교회 소식 각 1페이지 등으로 총 10페이지로 구성된다.

1955년 설립된 오픈도어는 올해로 68주년을 맞는다. 그동안 창립자 브라더 앤드류를 비롯하여 3분의 총재가 오픈도어의 리더십으로 섬겼다. 그러면서 초기 오픈도어의 정신이 세대를 넘어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오픈도어의 비전과 정신을 7가지 핵심가치로 정리했다. 이것은 오픈도어의 정체성을 가장 적절하게 표현한 것이며, 오픈도어 사역자들이 지켜가야 할 핵심 사역 전략이라 하겠다. 이 중에서 한국교회 선교사역과 비교해 특이하고 성찰할 만한 부분만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1) 동반자적 선교: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이다<sup>6</sup>.

첫 번째 핵심가치는 오픈도어의 정체성을 가장 적절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오픈도어 사역의 현장인 종교적 자유가 극도로 제한된 공산권과 이슬람권에 있는 박해 받는 교회와 긴밀하게 연대하는 사역임을 보여준다<sup>7</sup>. 동시에 우주적 하나님의 교회의 하나됨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상징되는 비유를 통해서 피선교지에 박해 받는 교회와 상대적으로 자유세계에 있는 교회 즉 선교에 참여하는 선교국간의 긴밀한 연대와 역할을 잘 조화시켜야 함을 의미한다. 이것은 일방 통행식의 관계가 아니라 상호보완적 관계로 설정된다.

피선교지에 있는 박해 받는 교회는 대부분 경제적으로 열악하고, 구제 구호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극심한 박해가운데서도 교회의 생명력을 유지해 오고 있다. 초대교회적 신앙의 야성을 이어오고 있으며, 생명력이 강하고, 박해를 받으면 받을수록 연단과 고난을 통해 순결하게 단련된 깊은 영적 감동을 선사하고 있다. 그러므로 한국교회가 박해 받는 교회와 함께 긴밀한 연대감을 갖고 세계 선교에 참여한다는 것은 우리의 풍부한 물질과 선교적 인프라를 일방적으로 흘려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필요를 채우며, 우리의 영적 궁핍함을 채움 받는 상호보완적 관계인 것이다. 강한 지체와 약한 지체의 상호간 연합과 하나됨은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도록 격려하는 동반자적 선교전략인 것이다.

#### 2) 현지 교회의 필요에 응답하는 선교: 우리는 박해 받는 교회를 섬긴다<sup>8</sup>.

두 번째 핵심가치는 오픈도어와 다른 사역을 구분 짓는 핵심요소이다. 우리가 누군가를 섬긴다고 표현할 때 오해하는 부분 중의 하나는 자신의 경제, 문화 혹은 사역의 우월감의 발로로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박해 받는 교회를 섬긴다는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좀 더 다른 의미를 지닌다. 우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 가장 비싼 대가를 치르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라면, 가능한 어디든지 가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필요를 도우며, 최선을 다해 섬기는 이 모든 것을 포함한다. 또 한 가지는 그들의 필요를 우리가 결정하지 않고, 박해 받는 교회가 우리의

---

<sup>6</sup> Strengthening the CORE, Open Doors International, Santa Ana, 2017. P. 9-14

<sup>7</sup> 고전12:26-27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sup>8</sup> Ibid. p. 16-27

사역을 지도하고 사역의 방향을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이미 정해진 프로그램을 현지 교회에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분들의 필요와 요청을 듣고 기도 가운데 그 요청에 맞는 프로젝트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사실은 그동안 서구교회와 한국교회의 선교를 돌아보며 반성하는 부분과 맞닿아 있기도 하다.

### 3) 현지 교회가 주체가 되는 선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지상명령에 순종한다<sup>9</sup>.

오픈도어의 마지막 7번째 핵심가치인데 이는 사역의 궁극적 목표를 제시해 준다. 우리는 어떤 종교나 신조를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데 헌신된 사람들이다. 우리는 예수의 제자이며, 궁극적으로 우리의 섬김의 대상인 박해 받는 교회가 예수의 제자의 길을 같이 걸어갈 수 있도록 영적으로 무장하고, 훈련하고, 세계선교에 참여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다. 오픈도어는 박해 받는 성도들을 구출하거나 그들의 가정이나 사회 문화에서 벗어나도록 돕지 않는다. 오히려 그리스도안에서 그들을 굳세게 세움으로 그들이 속한 공동체에서 그리스도의 교회로서 온전히 세움을 받아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도록 도전하는데 초점을 둔다.

일반적으로 박해를 가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므로 누구도 행동방식을 강제할 수 없다. 다만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지혜롭게 다가갈 것인지 오로지 그 지역 교회의 판단과 결정이 중요할 뿐이다. 어떤 결정을 하던 건강한 교회라면 비록 박해에 직면한다 하더라도 복음의 증인으로서 바른 길을 선택할 것이라는 믿음을 잃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

오픈도어가 지난 68년간 공산권과 이슬람권에서 상대적으로 위험한 사역을 하면서 이러한 확고한 태도와 입장을 지속해 왔다면, 이 방법을 우리가 깊이 고민하고 사역현장에 적용할 만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

### 4. 월드와치리스트(WWL, World Watch List) 상위 50개국 어떻게 볼 것인가?

WWL을 보면 해마다 상위 50개국의 순위가 변동되고 있지만, 대체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과 중앙아시아 중동 그리고 아시아의 공산권을 중심으로 포진 되어 있다. 이 지역은 한국교회 선교사 파송률이 압도적으로 높은 지역에 해당한다. 이 말은 지난 30년간 축적된 WWL의 각 국가별 정보가 이미 파송된 한국 선교사들에게 잘 전달되지만 한다면 유용한 정보로 서로 교차 검증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사역상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또한 파송교회의 입장에서 보면 선교지의 다양한 측면을 이해하는데, 오픈도어의 입장이 크게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선교담당자를 훈련하고 일정 수준의 관점을 유지시켜 줄 것이다. 왜냐하면 WWL의 보고서 자체가 각 국가에서 발생한 유의미한 사건사고들을 순차적으로 잘 요약 분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선교의 모든 행정을 집행하는 선교단체에게도 WWL은 일정 부분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 한국위

---

<sup>9</sup> Ibid. p.43-47

기관리재단에서 매일 각 국가별 위기상황을 간단하게 브리핑해서 전달해 주고는 있지만 사건사고에 대한 간단한 사실만 전달될 뿐 깊이 있는 현장 사역자의 기사를 접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WWL는 현장의 사역자와 외부 전문가 그리고 WWL 분석연구원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감시 관찰한 결과들이 심도 있게 소개되기에 현장을 깊게 들여다보며, 선교방향과 전략을 세우는데 유익할 것이다.

선교에 관심이 높은 일반성도나 선교 헌신자들에게도 WWL은 일정부분 도움을 줄 수 있다. 매주 발간되는 선교현장의 소식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단기로라도 현장 방문을 하게 된다면 선교현장에 대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고, 실제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50개국의 정보는 우리에게 무엇을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지 매우 유용한 안내자로서 피선교국의 상황을 공감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할 것이다.

## 5. 나가는 말

월드와치리스트 발표를 준비할 때마다 매년 비슷한 느낌을 받는다. 지난 30년간 오픈도어 세계 기독교 박해지수는 기독교 언론의 주목을 받아왔다. 이것은 아마 기독교 박해상황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연구해서 발표한 유일무이한 통계자료이기 때문인지 모른다. 그러나 이것을 사람들의 주의를 끄는 통계로 접근하는 것은 크나큰 우를 범할 수 있다. 통계자료를 아무리 정교하게 분석하고, 숫자를 나열한다 해도 박해 받는 교회의 정서를 다 담아낼 수 없기 때문이다.

필자는 월드와치리스트를 전달하는 언론사들이나 이 정보를 접하는 한국교회에 다음의 몇 가지를 당부하고 싶다. 첫째는 수치로 전달되는 통계보다 그 행간에 담긴 사람들에게 주목해 주기를 바란다. 나와 같은 한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겪어야 하는 수많은 고난과 압박을 먼저 생각해 주기를 바란다. 둘째는 그들의 이야기에 주목해야 한다. 그들의 이야기가 항상 승리와 감동만을 전달하지 않을 것이다. 때론 실패하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자신을 숨길 수 밖에 없는 우리가 알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깊은 내면을 간직하고 있을 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들의 이야기가 오늘 나에게 무언가 말하고자 하는가를 기대하며 그들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였으면 한다. 셋째는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스스로 물어보아야 한다. 그러면 WWL가 나에게 말을 걸어 올 것이다. 수많은 고난 받는 교회와 성도들이 다정한 이웃이 되어 찾아 올 것이다. 그러므로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나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전12:26)는 말씀이 실감나게 될 것이다.

그들의 이야기를 함께 읽고, 함께 나누고, 같은 편이 되어 지지를 보내자!